

# '그때 그 시절'의 감상 넘치는 독서풍경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에 눈길 돌려... 냉철한 분석·실용적 관심 기대

지금 한국 사람들은 울고 싶어한다. 6·25 이후 최대 국난기로 일컬어지는 이 시기를 사람들은 눈물과 어려운 시절의 회고로 견디고 있다. TV나 영화·연극, 심지어 서점까지 이런 분위기다. TV는 가난했던 70년대를 배경으로 6남매를 키우는 홀어머니를 그린 <육남매>를 방영하고, 코흘린 자국이 선명한 누더기 어린이들이 단골로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필름 <그때를 아십니까>를 보여준다. 가난 때문에 빚어지는 우여곡절의 가족사를 다룬 악극 공연은 연일 장사진을 이룬다. 제목조차도 <불효자는 읍니다>, <홍도야 우지마라>나 <눈물의 여왕>처럼 '눈물' 일색이다.

## 가족 사랑 일깨운 책에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한결같이 가난한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TV와 연극 속의 등장인물들은 삶은 계란 반쪽을 아금아금 아껴먹고, 짜장면 한 그릇을 여럿이 나눠먹어야 하지만 가난 때문에 친척집으로 보내지는 동생에게 계란 '후라이'를 기꺼이 양보할 만큼 가족간의 사랑이 단단하다.

<몇가지> 시리즈가 점유하다시피했던 서점의 베스트셀러도 달라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독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오래 전에 출간되어 스테디셀러를 기록했던 <우등 한 그릇>(청조사)이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새삼스럽게 진입했다. 연말 저녁이면 한 그릇의 우등을 시켜 나눠먹는 가난한 가족의 단란함과 우등집 주인이 그들에게 베푸는 따뜻한 호의를 그린 책이다.

13살 소년이 겪는 삶의 체험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해 본격문학으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홍어>(문이다)는 배경이 '그때 그 시절'이라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출판사측은 "독자들은 이제 문학성을 그리워한다"고 자체분석하는데, 홍보전략에서 소설의 배경을 심분활용했다. 이 책은 신문광고에서 "기억 저편에 소중한 간직된 흑백사진 같은 소설"을 헤드카피,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 이 소설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를 부제로 뽑았다. "... 어렸던 시절 고단했던

**6·25 이후 최대 국난기로 일컬어지는 이즈음 독자들은 어려운 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견디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 카타르시스에 그치고 말 복고적センチメン티즘보다는 희망을 꿈꾸는 사회분위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영화 <편지>의 한 장면.

삶을 그린 소설..."이라는 사실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지난해 <아버지> 열풍을 타고 출간되었던 <슬픈 어머니>(자유지성사)도 울들어 또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자식들 걱정으로 죽을 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헌신적인 어머니를 그린 이 책의 독자들은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줬다"고 감상을 말한다. <슬픈 어머니>의 독후감으로 독서감상문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독자는 "(책을 읽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많이 힘들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낸 아름다운 기억을 되새기고 지금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썼다.

## '눈물' 흘리고 싶어 읽는 책들

신간 가운데서도 '감동'이나 '눈물', '가족'이라는 부제를 가진 책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얼마전 출간된 <아우야, 세상엔 바보란 없단다>(밝은세상)는 '눈물처럼 맑은 영혼을 일깨우는 진한 감동의 가족사랑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눈물겨운 감동의 소설'이라는 <스물네개의 노동자>(자유포럼)는 일본에서 2차 대전 패전 후 발표되어 전 열도를 눈물의 바다에 빠뜨린 책이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했던 1930년 무렵의 일본 시골마을을 배경으로 제자와 선생님의 정겨운 사랑을 담았는데, 세월이 흘러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은 제자와 전쟁미망인이 된 선생님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은 '눈물없인' 볼 수 없다.

<아우야, 세상엔 바보란 없단다>는 정박아형을 둘러싼 가족들의 사랑을 그린 표제작

과 입양소녀 엔지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가족들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담은 <사랑을 남기고 간 소녀> 두 편의 이야기를 묶었다. 출판사는 이 책이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진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차갑게 움츠러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각박한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말한다. 출간한 지 한달 남짓이지만 이 두 권의 책은 꽤 팔린다고 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소재로 한 <편지>(바다)와 <8월의 크리스마스>(예술시대)는 먼저 영화로 소개됐지만, 책으로도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일회용 카타르시스 아닌 냉철한 태도 필요

문단에서는 이같은 독서분위기를 "IMF 시대를 맞아 이제까지의 감각적이고 소비적인 신세대 소설의 거품이 빠지고, 그 공백을 감상주의가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60·70년대의 소설이나 영화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조건을 드러내거나, 가부장제에 억압받는 여성을 주요 소재로 삼는 등 사회비판의 힘이 날카로웠던 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문학평론가 신수정씨는 "지금의 퇴보적 감상주의에는 우리가 이미 극복했다고 믿는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들이 숨어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책으로 성장제일주의를 추구해 물질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가족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세대소설이 성취

한 실험정신 등 긍정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격하는 우리 문화의 경박한 풍토가 드러난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경제성장 외에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떤 이는 "이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다각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거듭해도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차라리 고통에 길들여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겠느냐"고 되묻는다. 또 "슬픔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는 유전자적 요인"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유행의 순환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평범한 가장을 봉지쌀을 훔치는 줌도둑이 되게 하고, 때로는 칼을 든 강도로 만들기도 한다. 극단적으로는 나이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사살을 결행하게 할 만큼 잔혹하다. 희망과 비전, 인간에 대한 예의가 남아 있었던 60·70년대와는 엄연히 다른 시절인 것이다.

소설 제목처럼 "슬픔도 힘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소설이 아니다. 엄혹한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거나 자신의 서글픔을 투사해 일회용 카타르시스에 그치고 말 복고적センチメン티즘보다는 희망을 꿈꾸게 하는 사회분위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쩌다 이 지경에 됐는지 처음부터 냉철하고 꼼꼼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찾는 거시적인 태도, 실직자나 구직 희망자들에게 알토란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줄 실용적인 관심을, 적어도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 이현주 기자